

## 영 김 의원, 연방하원 '출산 보건 코커스' 공동의장 선출



▲ 연방하원 의회에서 발언 중인 영 김 의원. 사진=youngkim.house.gov

영 김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 40지구)이 연방하원 내 코커스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영 김 의원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로빈 캘리 하원의원(일리노이 2지구)과 공동으로 118대 연방 하원의 초당적 출산 보건 코커스(Bipartisan Maternity Care Caucus)의 새로운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 측은 코커스의 목적은 “초당적인 산모 보건 정책을 진전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의장은 산모와 아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네 아이의 엄마이자 두 아기의 할머니로서 모성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대유행과 출산, 육아비 증가로 어머니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전국의 엄마와 아기, 그 가족들을 위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지난 회기에 24시간 365일 산모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핫라인을 만드는 등 더 나은 산모 보건 정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산모 사망의 80%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LACMA 이사 선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LA 카운티 미술관(LACMA) 이사로 선임됐다.

LACMA는 7일 이 사장이 올해부터 이 미술관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LACMA는 이날 “새로운 이사가 이사회에 선출되었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근현대 미술의 영향력 있는 후원자인 이부진 사장은 한국과 아시아의 예술과 문화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와 공유하려는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트+필름 갈라를 포함해 전시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LACMA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LACMA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열렸던 ‘사이의 공간: 한국미술의 근대’ 전시회도 삼성문화재단이 지원했다. LACMA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이 전시회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가운데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이응노, 이성자 화백 등의 작품 20점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바 있다.

한편 LACMA는 이날 이 사장을 포함해 제프 야부키 사모펀드 사모티브파트너스 회장 겸 공동창업자, 벤처캐피털리스트 짐 타난바움 창업CEO 등 총 11명의 신임 이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ACMA의 총 이사 수는 65명으로 늘었다.

LACMA는 이날 현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LACMA의 건물 신축 공사 소요자금 7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인 3억 3000만 달러가 이사들의 기여금으로 충당됐다고 발표했다.

## LA총영사관, 3월 취업·창업 온라인 세미나 개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소칼 K그룹(남가주 한인 IT/아트/테크/스타트업 전문가 모임)과 함께 한인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3월 17일(금) 저녁 7시 30분(서부시간)부터 한국어로 진행되고, 사전등록 (<https://linktree.com/socalkgroup>)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자에게는 추후 세미나에 참가 할 수 있는 줌링크를 보내 준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재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 Sr. Software



▲ LA총영사관 개최 취업·창업 온라인 세미나 포스터. 사진=overseas.mofa.go.kr

Development Engineer가 강사로 나서 지난 25년간 IT 업계에서 활동한 경험담에 대해 강연하고 IT 산업 현황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를 마친 후 오후 9시부터는 LA 하이트 광장에서 김태현 엔지니어와 함께 드링크업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LA총영사관은 한인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213) 385-9300 내선 403  
[jwyoon02@mofa.go.kr](mailto:jwyoon02@mofa.go.kr), [socalkgroup@gmail.com](mailto:socalkgroup@gmail.com)

##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1. 풍부한 실무 경험  
2. 정확한 회계 업무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회계사 오승윤  
UC San Diego 졸업  
미 해양 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 역임  
Member of CS

714.522.1120 FAX. 714.522.1121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